

내 용 : 『노동리뷰』 3월호 - 이슈분석

■ 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?”(이인재 연구위원)

-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짐. 대체로 우리나라 고용관련 규제수준은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고 중진국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
 - ※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고·고용의 자율성을 평가하면 OECD 27개국중 12위로 유연성이 중상 수준(세계경쟁력보고서). 노동시장 규제가 유연성을 저해하는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는 OECD 27개국중 25위로 규제가 매우 심한 나라(세계경쟁력연감).
 - ※ OECD의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하면 유연성이 OECD 28개국중 12위.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규제지수를 재산정하면 28번째로 규제수준이 낮음.
- 한편 노동시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조정속도로 판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용조정의 유연성은 매우 높음.
 - ※ 고용조정속도는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9위.
- 노동시장 규제 정도가 강할수록 고용조정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,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고용규제 수준에 비해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
 - 이러한 괴리는 기업수준에서의 임금경직성에서 연유함.
 - ※ 호봉제와 연공급 성격이 강한 경직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수요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이 어렵고,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수요변화에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연구위원

Tel : 783-8962 E-mail : leeinjae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?

| | |
|-----|-------------|
| 담당자 | 이인재 연구위원 |
| 전화 | 02)783-8962 |

-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‘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유연한가?’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-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도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유연성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조정의 유연성으로 평가할 수 있음.
- 경영자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WEF(세계경제포럼)와 IMD(국제경영개발원)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해 매우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(표 1 참조).
- 우리나라의 고용보호법제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(표 2 참조)

<표 1> 경영자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

|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WEF: 사용자의 해고·고용의 자율성 | 7위 | 9위 | 9위 | 12위 |
| IMD: 노동시장 규제 지수 | 18위 | 18위 | 20위 | 25위 |

주: 비교대상 국가를 OECD 27개국으로 한정하였음.

자료: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0-2004, *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0-2004*.

<표 2> OECD의 고용보호법제의 유연성

| | 1990년대 후반 | 2003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
| 정규고용 보호지수 | 18위 | 16위 |
| 임시고용 보호지수 | 17위 | 17위 |
| 집단해고 지수 | 4위 | 3위 |
| 종합지수(version 1) | 12위 | 16위 |
| 종합지수(version 2) | 13위 | 12위 |

주: version 1은 정규고용 보호지수와 임시고용 보호지수의 단순평균임. version 2는 정규고용 보호지수와 임시고용 보호지수 및 집단해고 지수를 가중평균한 것임.

자료: OECD, *Employment Outlook*, 1999, 2004.

-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조정속도를 실제 측정하면 60여 개국 중 9위
 -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고용조정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고용조정속도는 조사대상 60여 개국 중 9번째로 빠름(제조업 부문의 고용조정속도; 우리나라 0.696, 전체평균 0.526, 선진국 0.486, 중진국 0.525)
 - 우리나라의 고용조정속도가 0.696이라는 의미는 고용조정 필요인원(최적고용량과 현재고용량의 차이)의 70%가 당해연도에 조정된다는 의미.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용조정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.

- 한편, 우리나라 노동시장 규제정도는 세계 85개국 중 28위
 - OECD국가와 그 밖의 국가를 포함한 세계 85개국의 고용관련 규제 정도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38번째로 고용규제가 낮은 나라로 나타남.
 - 우리나라의 고용관련규제는 선진국 수준보다는 높지만 중진국 수준보다는 낮음(노동시장 규제지수; 우리나라 0.446, 전체평균 0.500, 선진국 평균 0.407, 중진국 평균 0.546)

- 노동시장 규제 정도가 강할수록 고용조정의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,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고용규제 수준에 비해 고용조정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음.

-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규제정도와 실제 고용조정 유연성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수준에서의 임금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음.
 - 호봉제와 연공급 성격이 강한 경직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수요변화에 따른 임금조정이 어렵고,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수요변화에 임금조정보다는 고용조정 위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 - 임금의 조정기능의 약화와 이에 따른 과도한 고용조정의 필요성에서 야기되는 마찰들이 개별기업단위에서의 고용조정의 “체감 경직성”을 높이는 주요한 원인일 수 있음.
 - 그러나 이러한 ‘임금경직성 가설’이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